

2014년 3월 15일 경찰공채 1차

해설 : 경단기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원사 시대 유적이다.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동검
- ② 양양 오산리 유적 - 뼈 낚시바늘
- ③ 여주 혼암리 유적 - 오수전
- ④ 부산 동삼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

1. 정답 : ③

여주 혼암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 유적이다. 오수전은 전한 무제 대 만든 화폐로 철기 시대 유물이다. ① 부여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 대표적 유적이고 비파형동검 역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다. ② 양양 오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고 신석기 시대에는 뼈 바늘이나 뼈 낚시 바늘 등의 골각기를 사용하였다. ④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토기는 빗살무늬토기이다.

2.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 ②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 ③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④ 위만조선은 한의 침략에 맞서 1차 접전(폐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2. 정답 : ③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우거왕은 위만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한 무제와의 항쟁 과정에서 자객에게 암살당하였고 이후 고조선은 멸망하였다.

① 위만이 고조선 입국 시에 상투를 틀고 호복을 입고 있었다는 등의 근거를 통해 위만 조선이 단군 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여긴다. ②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기록한 통사로 단군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④ 고조선은 한 무제의 침략에 맞서 1차 접전(폐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약 1년 동안 5차례에 걸친 한의 침략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3.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을 헤아린다. 수해나 한재를 입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②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③ 가(加)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3세기 말 읍루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3. 정답 : ④

제시된 지문은 부여와 관련한 사료이다. 부여는 3세기 말 읍루족이 아닌 선비족의 나라 전연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다. 선비족 전연은 부여를 공격하고 이어서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평양성으로 패퇴하였다. 이후 고국원왕은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

① 부여는 이미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1세기 초에는 왕호를 사용하여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나타냈다. ②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③ 부여에는 마가·우가·저가·구가라는 군장 세력이 있었으며 이들 가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4. 다음 역사적 사건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 ㉡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하였다.
- ㉢ 고구려 장수왕은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4. 정답 : ②

㉤ 427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실시하여 475년에 백제의 위례성을 함락한 후 죽령 일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 532년 신라 법흥왕 대의 사실이다. → ㉡ 백제 성왕은 538년에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였다. → ㉠ 신라 진흥왕은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고 이후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에 승리한 후 한강 이남 지역을 독차지하고 555년에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 신라 진흥왕은 562년에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5. 다음 중 신라 왕호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삼국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 ②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남녀 인구 수와 소·말의 수, 토지 면적 등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되었다.
- ③ 신라에서는 4-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 ④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여 수도 뿐 아니라 농촌 각지에서도 시장이 번성하였다.

7. 정답 : ④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의 수준이 낮아 수도 같은 도시에서만 시장이 형성되었다. 신라는 소지왕 대 경주에 시장을 열었고 지증왕 대 시장 감독 기관으로 동시전을 설치하고 서울(경주)의 동쪽에 동시를 설치하였다.

8. 다음은 고려 성종이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 ㉣ 3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 ㉤ 최승로가 올린 시무 10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정답 : ②

8. ㉣ 고려 성종은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한 뒤 고려에 맞게 독자적인 2성 6부 체제로 확립시켰다. ㉤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건의안은 ‘시무 28조’이다.  
 ㉠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최초의 지방관 파견이었다. 또한 호족들을 호장과 부호장으로 개편하고 이들을 향리 제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 고려 성종은 중앙 교육 기관으로서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992)하였고,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였으며,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고려 성종은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고, 과거를 중시함으로써 유학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9. 고려시대의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 하였다.
- ②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도방을 확대하여 군사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 ③ 최우는 문무백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서방과 능력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하였다.
- ④ 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

으로 구성되었다.

9. 정답 : ③

③ 최우 집권기에 인사 행정을 담당했던 곳은 정방이고, 문신을 등용하기 위해 설치했던 곳은 서방이다.

① 무신들의 합좌 기구였던 중방은 무신 집권기에 최고 기구로 자리 잡았다.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② 최충헌 집권기에 설치된 교정도감은 정적 제거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점차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또한 최충헌은 경대승 때 권력 강화 기구로 설치되었던 사병 집단인 도방을 다시 확대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고 무단 정치를 강화하였다.

④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지원을 받아 조직이 확대 · 강화되면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분리되었고, 대몽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의군을 포함하여 삼별초로 조직되었다.

10. 다음의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에 만들어진 유산은?

동명왕의 사적은 변화와 신이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일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세운 신의 자취인 것이다. 이러하니 이 일을 기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에 무엇을 볼 수 있으리요.

① 부석사 무량수전

② 광개토왕릉비

③ 석촌동 고분군

④ 범주사 팔상전

10. 정답 : ①

제시된 역사서는 무신 집권기에 저술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①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배흘림 기둥 양식과 주심포식으로 건축되었다.

② 광개토왕릉비는 414년(장수왕 3)에 고구려 제19대 광개토왕의 훈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들인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다. ③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 한성시대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하고 있다. ④ 범주사 팔상전은 17세기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다.

11. 다음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라고 하였다.

① 명종 때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 회의 기구이다.

② 세도정치기에도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③ 의정부의 의정과,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좌기관이다.

④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11.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에서 밑줄 친 ‘이 기구’는 비변사이다. ① 비변사는 중종 때의 삼포왜란(1510)을 계기로 병조 예하의 임시 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 이후 상설 기구화되었다.

② 비변사는 19세기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등의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③ 비변사의 도제조에는 4~8명의 전 · 현직 의정들이 있었으며, 제조에는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강화유수, 대제학, 5군문 대장 등이 참여하였다.

④ 비변사는 흥선대원군이 집권(1863)하면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일반 정부는 의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비변사는 외교 · 치안 · 국방 문제만을 담당하게 했다가(1864), 다시 이듬해(1865)에 삼군부를 부활시켜 국방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비변사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12. 다음은 조선시대 봉당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① ㉠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② ㉡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③ ㉢ - 예송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④ ㉣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12. 정답 : ④

④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였던 봉당은 윤증 중심의 소론이고,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였던 봉당은 송시열 중심의 노론이다. ① 선조 때에는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사림 간에 갈등이 야기되었다. 척신 정치의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기성 사림은 서인으로, 척신 정치의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신진 사림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② 선조 때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우의정에 특배된 정철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동인을 사사하면서 동인의 미움을 사게 되었는데, 이후 세자책봉 문제로 정철이 선조의 미움을 받아 양사에 의해 탄핵될 때,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은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열되었다. ③ 현종 대에 서인과 남인은 예송 논쟁을 통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예송 논쟁에서 서인은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권 강화의 입장을 보였고, 남인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는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왕권 강화의 입장을 보였다.

13. 다음은 조선시대 양 난 이후 수취 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②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 ③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④ 대동법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제기되었다.

13. 정답 : ③

- ③ 영정법의 시행으로 전세의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하였으나, 당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반 양인의 대다수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영정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 ① 영정법은 종래의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던 제도이다.
- ② 대동법은 종래 호세(戶稅)로 징수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전세(田稅)화한 것(공납의 전세화)으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12두,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차등 있게 납부하도록 하였다.
- ④ 대동법은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미법을 개량하여 실시되었던 것이다. 또한 공납은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혁론으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14.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②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
- ③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대신에 딸과 외손자가 제사를 지냈다.
- ④ 혼인은 친영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14. 정답 : ②

- ② 조선 후기에는 부계 위주의 족보가 적극적으로 편찬되었으며,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이 형성되었다. ① 조선 후기에는 남녀 순으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③ 조선 후기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이성불양(異姓不養)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④ 조선 후기에는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재산 상속에서도 큰 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중략) 이 책을 지움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②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③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④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15.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성종 16년(1485)에 편찬된 『동국통감』의 서문이다. ①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고려에 걸친 통사로서 외기 · 삼국기 · 신라기 · 고려기로 구성되었다. ② 『동국통감』은 시대 순으로 이루어진 편년체 역사서이다. ③ 조선 후기의 역사서인 이종휘의 『동사(東史)』에 대한 설명이다. ④ 조선 후기의 역사서인 한치윤의 『해동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16. 다음은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②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③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40여 일만에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 ④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6. 정답 : ①

- ①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조선왕조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현재 조선 초기의 의궤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궤는 1601년(선조 31) 의인왕후의 장례 기록을 남기기 위해 편찬된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와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이다. ③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서 300여 책의 조선왕조의궤를 약탈해갔다. ④ 이때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을 2011년 4월 14일에서 2011년 5월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국내로 이송하였다. 프랑스 국내법을 이유로 완전한 반환이 아닌 5년마다 대여 기간을 영구 갱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이다.



17. 다음 대한제국기의 개혁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권 수호와 절대화에 필요한 대한국 국제 제정
- ②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
- ③ 다양한 시책을 통한 황실 재정 확충
- ④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 실시

17. 정답 : ②

대한제국은 정치적으로 전제군주제를 표방하였으며 의회설립운동을 주장하던 독립협회를 탄압하였다. ① 대한제국에서는 1899년 8월 전제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③ 대한제국은 황실 스스로 유리, 제직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회사 설립을 장려하였다. ④ 대한제국에서는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1899년부터 양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01년 지계아문을 설치한 후 지계발급이 이루어졌다.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 노비 문서는 모두 소각한다.
-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깎을 없앤다.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토지는 평균 분작한다.

- ① 고부 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한 사건이며,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 ②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임오군란 때 맺은 텐진(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 ③ 농민군은 전주화약의 체결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④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보은 전투에서 대패한 후 해산하였다.

18.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1894년 5월 8일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의 내용이다.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과 청군이 모두 철수하고 향후 파병시 상대국에게 서로 알릴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고부민란은 조병갑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정부는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였으나 이용태는 농민들을 동학교도로 통칭하고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오히려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③ 전주화약의 체결 이후 농민군은 개혁업무 및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④ 제2차 농민전쟁 때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패배하였고, 이후 보은 전투에서도 대패한 이후 해산하였다.

19. 다음 중 일제의 경제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
-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교체, 화학비료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③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 ④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19. 정답 : ①

토지조사사업은 1912년에 시작되었으며,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모두 조사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은 인정하였으나, 도지권을 비롯한 농민의 소작권이나 입회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품종 교체 및 화학 비료 사용 증가를 통해 쌀의 생산을 증식시켜 일본의 쌀 부족을 타개하고 동시에 미국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③ 193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은 조선의 공업화 정책으로서 만주를 원료 생산지로 조선을 경공업 기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④ 1940년대에는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함으로써 이 재화가 전시 군수 기업을 지원하는데 투입되었다.

20. 다음 (가), (나)는 해방 후 두 정치인의 발언이다. 아래의 <보기>중 두 정치인이 발한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  |
|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욕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  |

<보기>

|                   |                   |
|-------------------|-------------------|
| ㉠ 포츠담선언           | ㉡ 제주 4·3 사건       |
|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 |
| ㉤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 남북지도자회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정답 : ②

(가)는 이승만의 정읍 연설(1946. 6), (나)는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 2)이다.

㉠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 모스크바 3상회의는 1945년 12월,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은 1947년 11월,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

렬은 1947년 10월, ④ 남북지도자회의는 1948년 4월이다.